

민주통합당 출범... 당헌·강령 어떻게 달라졌나

경제 민주화·보편적 복지 전면 내세웠다

■ 민주 통합당 강령 및 정책

- 3대 목표
 - ① 경제민주화
 - ②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 ③ 한반도 평화와 통일
- 주요 정책방향
 - 공정한 시장경제, 재벌·대기업 근본적 개혁
 - 한·미 FTA 포함한 통상정책 국민이익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 토건중심 아닌 고용·교육 중시 균형성장
 -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
 - 종합선진채널 임직 재검토
 - 전자직접통제권 회복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우상보육·이동수당제도 발전화
 - 성평등 실현, 장애인·소수자 인권확대
 -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수령범위 확대
 - 건강보험보장을 높여 실질적 우상으로 달성
 - 고교 의무교육, 경쟁지상주의 입시 개선, 대학등 록금 문제 해결
 - 검찰·경찰·국정원·국제형사재판관 관련 개혁
 - 우주항공산업 지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활
 - 원전 전면 재검토



민주통합당 원내총무 이영선 공동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신임지도부 및 민주진보통합 대표자 연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촛불민심 계승·한미 FTA 재검토 등 진보색 강화

총선 룰 완전국민경선 원칙...청년비례대표 선출도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이 지난 16일 합당을 공식 결의하고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새 출발했다. 통합정당의 명칭은 민주당으로 정했다. 당헌·강령은 그동안 민주당이 유지해온 이념적 수준보다 한 보가량 '좌'클릭한 중도적 진보노선을 선택했다.

통합정당은 26일 예비경선(1인 3표제 원칙·9명 선출)을 치른 뒤 내년 1월 15일 대표를 포함한 6명의 지도부를 선출한 뒤, 지명직 4명, 당헌·당규 1명 등 11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한다.

◇당헌·강령 '좌'클릭 = 통합정당은 제1야당이던 민주당보다 진보 쪽으로 더 나아간 강령과 정책을 선보였다. 강령 전문에는 기존 민주당 강령에 있던 통일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외에 부마민주항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08년 촛불민심을 계승할 가치로 새롭게 명시했다.

정당의 기본 목표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보편적 복지를 기본권으로 한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세 축으로 제시했다. 통합정당이 추진할 정책도 진보적 색채가 강화됐다. 재벌·대기업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이룬내 경제 정책의 근간을 전환하고자 했다.

민주당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령에 명문화했다. 한·미 FTA와 종전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노동부 관련 정책도 더욱 강화됐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청년의무고용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고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지도부 경선 룰 = 통합정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달 15일 열린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헌후보는 기존 민주당 출신이 15명, 시민통합당 출신이 5명 등 2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6일 이들을 상대로 예비경선을 치러 9명의 후보를 뽑은 뒤, 본 경선을 통해 6명의 선출직 지도부를 뽑는다. 예비경선은 1인3표제 연기명으로 하며, 선거인단은 중앙위원 민주당 462명과 시민통합당 300명이 참여한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9명은 TV 토론·전국순회 연설회 등 20일 정도 전당대회 레이스를 펼치게 되며, 선거인단은 대의원 30%(양당 동수)·당원 및 시민 70%로 구성된다. 민주당 당비당원 12만 명은 자동 선거인으로 인정된다.

이번 새 지도부 선출에는 현장투표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다.

◇내년 총선 공천 룰 =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완전국민경선이 원칙이다.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원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민 배심원제는 최고위원회의 합의로 실시된다 점에서 적용 지역구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시 기득권이 문

제가 됐던 지역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공천 신청사퇴하고, 후보자가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를 지역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 노력성 심사가 강화되고 지역 여론과 의정활동 등도 공천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

◇청년 비례대표 최고위원 선출 = 통합정당은 젊은 층의 지지와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 2030세대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4명을 당선 가능권에 배정한다. 이중 1명은 최고위원으로 지명된다. 통합정당은 비례대표를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방식을 빌려 청년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뽑을 계획이다.

전국 권역별로 일정 인원을 선발한 뒤 이들을 합숙시켜 가며 오디션을 진행하고 현장투표·모바일 투표 등의 방법으로 최종 후보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기존 민주당보다 세대 측면에서 외연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당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수사권 조정'은 꿈꾸는게 좋겠다

통합 완수 손학규, 이제 대권 바다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통합당 임시지도부에 당권을 넘기고 더 큰 대권의 바다로 항해를 떠났다.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지 14개월 보름여만이다. 그는 당분간 지방에서 정국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행보를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건은 만만치 않다. 우선 야권통합 과정에서 '손학규 사단'은 사실상 와해됐다. 특히 우군이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도 소원해졌다. 지지율도 한자릿수다.

그럼에도 그는 야권통합을 이뤄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절대적 당권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시대적 명

분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했다. 순간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묵묵히 당내 반대를 이겨냈다.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탈당 이후 이번까지 모두 3차례의 통합을 성사했다. 탈당 후 '선진평화연대'를 만들어 자신의 정치세력을 키워가다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권 통합에 합류한 선언,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이 급물살을 타게 했다. 또 대선 패배 이후인 2008년에는 대표직을 맡아 4년 전 갈라섰던 구(舊) 민주당과 합당해 통합민주당을 만든 뒤 지금의 민주당으로 개명해 정세균 전 대표에

게 대표직을 넘겼다.

그는 마지막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통합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며 의원과 당원·당직자에게 공을 돌리면서 "우리가 통합된 민주당을 잘 이끌어 총선을 승리하고 수권 태세를 갖추면 민주당이란 당명을 공식적으로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당명 변경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정당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것이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지원기자 jpkpark@kwangju.co.kr

설립자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 구조조정 불러 결국 학생들만 애꿎은 피해

4년제 대학인 순천 명신대학교와 전문인 강진 성화대학의 퇴출이 결정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 2월 29일 폐쇄된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이후, 첫 퇴출 사례가 두 대학이라는 점에서 광중·전남지역 대학가의 충격은 그만큼 컸다.

두 대학은 운영과정의 부실과 비리 문제가 퇴출되는 첫 사례다. 광주에설대와 경북 아시안대는 설립과정의 비리로 각각 2000년과 2008년에 문을 닫았으며, 퇴출대학 수는 4개로 늘었다.

두 대학의 퇴출 결정 발표를 시작으로, 한 달여 만에 4개 대학이 경영 부실대학으로 추가 선정되는 등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전국 대학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어 향후 대학 구조개혁을 사이에 둔 교육부와 대학 간의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들은 "정부가 국가의 교육 의무를 포기하고, 대학을 상업화와 취업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교육 재정 확대, 대학 구조조정 철회 촉구 시위까지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회고 2011

- 1 안철수 현상
- 2 '도가니' 충격
- 3 기아차 질주
- 4 영국의 5·18
- 5 야권통합
- 6 부실대학 퇴출
- 7 조선대 총장 선거 파문
- 8 무상급식과 복지 재검토
- 9 풍성한 국제행사
- 10 가거도 방파제 붕괴

의 편입은 정시모집 이후, 내년 1월부터 시작 된다. 성화대학을 운영 중인 세림학원은 학교 폐쇄와 동시에 법인 해산 명령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 감사에서 수익용 기보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17건의 부장·비리가 적발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한 건수는 5건에 그쳤다.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대학가의 관심을 끌었던 성화대도 6월 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20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나 대다수를 시정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교과부의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하지만 교과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온 만큼 학교폐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지난 9일 전문대인 영남의국어대학·김포대학·속초 동우대학과 4년제인 천안 선교대학 학교 등 4개대를 부실대학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현재 경영부실대학은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명신대·성화대학을 포함해 18개교로 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롯데제이티비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유일한 여행사입니다. 여행 문의 **1577-6511**

무안 출발상품 예약자 특전! 북경/상해 엔제리너스 커피쿠폰 증정 **선착순 100매!**

북경 *365일 특가! 북경+만리장성,서커스 **4일/5일** 특가 **259,000원** ~ 12/27,30 1/3,6,10~

상해 *세계 자연유산 탐방! 상해/장가계(원가계,천문산) **4일/5일** **899,000원** ~ 12/24,28,31 1/5,14,21,26,28~

북경/만리장성+금문양조 **4일** **399,000원** ~ 12/27,30 1/3 2/14,21,28~

유럽 롯데호텔링 인기상품 시리즈

터키완전일주 6성급/특급/항공이동 **9일** **1,590,000원** ~ 12/30 1/14,4,11,18,25,2/1,8,15,22,29~

북인도 완전일주 특급/특급/항공이동 **8일** **1,390,000원** ~ 12/30 1/13,20,27,1/31,2/10,17,24~

동유럽 4국 특급/특급/항공이동/노선 **9일** **2,890,000원** ~ 12/30 1/4,11,18,25~

서유럽 6/8국 특급/특급/항공이동 **6/7 12/13일** **3,290,000원** ~ 12/29 1/2,9,16,23,30~

동남아 겨울방학 전세계기특선

태국 방콕 파타야 산호선 **5일/6일** **279,000원** ~ 12/27,30 1/3,10,17,24,31~

중국 홍콩 특급/특급/항공이동 **5일/6일** **599,000원** ~ 12/28,30 1/2,4,6,7~

코타키나바루 직항 특급/특급/항공이동 **5일/6일** **549,000원** ~ 12/31 1/4,7,11,14,18,21,25,28~

미국 서부 완전일주 특급/특급/항공이동 **7일** **1,590,000원** ~ 12/25 1/15,18,22,26,29,2/5,9,13,17,21,25,29~

미주 롯데호텔링 인기상품

하와이 일주 LA전망유료 **7 5일/6일** **999,000원** ~ 12/29 1/5,12,19,26 2/2,9,16,23

미국 서부 완전일주 특급/특급/항공이동 **7일** **1,590,000원** ~ 12/25 1/15,18,22,26,29,2/5,9,13,17,21,25,29~

미서부 디즈니랜드 **8일** **1,790,000원** ~ 1/1,8,22 2/5,19

스페셜 프랑스 완전일주 남프랑스 동생이동 **9일** **3,490,000원** ~ 12/31 1/7,14,21 2/4,25

명품 이집트 5성급-호텔/사막/카라카 **10일** **3,090,000원** ~ 1/1 12/28 출발확정!

북해도 유빙선 체험 유빙선/빙속주행 **5일** **1,990,000원** ~ 2회 한정! 1/28 2/22

남아프리카 핵심 4개국 특급/특급/항공이동 **8일** **3,490,000원** ~ 1/1,8,22 2/5,19

남태평양 호주 뉴질랜드 남북식 노선/유류 **6/10일** **4,990,000원** ~ 12/30(화) 1/12(화) 2/16

호주 뉴질랜드 북식 특급/특급/항공이동 **8일** **2,890,000원** ~ 12/29(화) 1/4(화) 2/5(화) 2/16

롯데 자이언츠가 왔다! 단2회 1/25,26

사이판 PIC골드 4/5일 패리올 **849,000원** ~ 1/1,8,22 2/5,19

필리핀 블루오션 특급/특급/항공이동 **5일/6일** **779,000원** ~ 1/1,8,22 2/5,19

해남도 해구 삼색 무제한 골프 15일 108홀 **549,000원** ~ 12/22 1/6 144홀 **549,000원** ~ 12/25

PGA 하와이 소니 OPEN 대회 취합 명품 골프 **5일 2,490,000원** ~ 1/12

상남 및 문외처 ▶ **광주권** 롯데호텔링 광주점, 롯데마트 침판,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점, 롯데마트 수완점, 북구점 ▶ **전남권**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